



한국어아나운서클럽회보

2018년 9월 15일

제 31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어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아나운서클럽에 나오면 즐거워요

현역 17명과 회원 부부도 함께한 3분기 정례 모임

한국어아나운서클럽 3분기 정례 모임이 9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OBS 김준우 아나운서 협회장이 “선배님들 뵈니, 더운 날씨 이겨내고 더 건강해지신 것 같다.”라고 인사드린 것처럼, 황우겸, 임택근, 박중세, 전영우 고문을 비롯해 전주에서 올라온 권장수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기차게 펼쳐졌다.

임국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국어의 홍수 속에 이리다가 한국어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정도이다. 아름다운 우리말, 지켜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8명이 파견되었다. 신진 캐스터 육성 기회이기도 해 의미 있었다.”라고 한 KBS 김현태 실장에 이어 이재후 캐스터는 “과거 자료를 접할 때마다 선배님들의 명료한 음성과 탁월한 현장 묘사력, 존경스럽다.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김규홍 이영은 남궁미 최화숙 안주희 정도영 노영인 정영희 차기정 김재영 정연호 윤희자 변창립 정홍숙 이해옥 김현태 박찬열 조석영 부부 신동진 김상준 황선숙 구은영 정지원 김재익 맹관영 전영우 임택근 임국희 황우겸 박중세 성선경 박민정 배유신 김수지 채영신 황인우 이형균 박선영 이재후 김태규 김준우 한상원 홍소연

그 경지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MBC 황선숙 부국장은 “아시안게임 현장 중계에 4명이 참여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고, 신임 김수지, 이영은 아나운서는 “면접 때보다 더 떨린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유산 물려주신 선

배님들께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클럽 모임에 처음 참석한 MBC 변창립 부사장이 6년 만에 정규직 신입 사원을 뽑은 감회를 전한 후, “방송 초창기 선배님들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내겠습니다!”라고 공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정홍숙 회원이 김재진 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를 암송했고, 임택근 고문은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 후배들 보러 나온다. 변창립 아나운서가 MBC 부사장 된 것을 축하하며 앞길의 영광을 위하여 추배!”를 외쳤다.

3분기 정례 모임은, “유리디체아카데미(회장 정홍숙)가 12월 5일 오후 3시 30분 개최 예정으로 아나운서클럽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준비했다. 음악 감상회 비용은 제가 대겠으니 많이 오셔서 즐겨 달라.”라는 김재익 회원의 초대에 박수로 화답하며 막을 내렸다.



클럽 회원 제2차 창녕 성씨 고택 답사 영원무역 초청 1박 2일 여행

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의 두 번째 1박 2일 창녕 여행이 이루어졌다. (주)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이 6월 29일과 30일, 당숙모인 임국희 회장을 위해 클럽 회원과 지인 40여 명을 2016년 이어 또 한 차례 경남 창녕 석리 성 씨 고가에 초청한 것이다.

황우겸 고문을 비롯한 아나운서클럽 회원 24명, 임국희 회장의 경기여고 동창 20명 및 임 회장이 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방송DJ협회(회장 한용진) 회원 4명 등 48명은 영원무역 대구공장, 경화회관, 노스페이스 신축 건물, 우포늪 체험관 일정을 함께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이는 임국희 회장 재임 중 이루어진 특별 기획, MBC 상암동 신사옥 견학(2015.6.3), 창녕 고가 방문(2016.4.11~4.12), 파주 헤이리 탐방(2017.4.7)에 이은 네 번째 야외 이벤트였다. 탐방기 7면, 사진 별지

‘이규향의 발음 이야기’ 본보 연재 연내 출간



아나운서클럽 회보에 2014년 9월(제11호)부터 2018년 6월(제30호)까지 5년간 연재된 「이규향의 발음 이야기」가 형설출판사에서 「재미있는 한국어의 미학」이란 제목으로 연내에 출간될 예정이다.

제2대 KBS 한국어연구회장을 지낸 저자는 “1977년 형설출판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책인 「미국 야구」를 펴낸 적

이 있어 감회가 새롭다. 아나운서 지망생과 KBS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는 물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음성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부록으로 동음이의어 등 발음 자료를 덧붙인 「재미있는 한국어의 미학」은 왜 우리가 표준 발음을 해야 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최만린 고문 정릉 자택 성북구립미술관으로 재탄생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 최만린 고문의 정릉 자택이 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역 근현대 예술가들의 집터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최만린 작가가 1988년부터 30년간 생활 및 작업 공간으로 거주해온 정릉 자택 매입



최만린미술관(연면적 231㎡) 내년 초 개관

절차를 마치고 구립미술관 분관 ‘최만린미술관’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중이다.

지난 4월 협약식 이후 근처 빌라로 이사한 최 고문은 성북구에 작품과 자료를 우선 기탁하고, 적절한 과정을 밟아 작품을 기증할 계획이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지상파 시청률 폭증



이재후



김정근



배성재

3위를 차지했다.

9월 1일 치러진 남자 축구 결승, 한일전 연장전은 실시간 시청률이 63.78%로 집계되는 등 선수들의 투혼 못지않게 지상파 3사 아나운서들의 노련한 중계가 많은 이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다양한 종목이 선보인 자카르타·팔렘방 2018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 카누, 조정 경기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 우리나라는 금 49, 은 58, 동 70개로

그리고 10여 명의 캐스터와 함께 KBS 이재성, MBC 이재은, SBS 박선영, 장애인 아나운서가 현장에 파견되어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했다.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거행

SBS 탐사보도팀 대상 수상

제45회 한국방송대상은 SBS 탐사보도팀(사진)의 <8뉴스-에버랜드와 삼성 합병> 특종 및 연속 보도가 차지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SBS 박정훈 사장)는 8월 27일 23편의 작품과 22명의 방송인을 선정,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시상식 현장에서 대상을 발표했다.

이 날 지역 오락 부문 울산MBC 이관열 아나운서가 <이관열, 이남미의 확 개는 라디오>로 작품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아나운서상 박선영(SBS), 앵커상 김



준호(OBS), 내레이션상 이규원(KBS), 지역 방송 진흥상 최진구(울산MBC) 아나운서 등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 수상 소감 2면)

제55회 '방송의 날' 특집

칼럼

방송의 주역은 아나운서입니다

차인태 (전 MBC) 부회장

첫 방송 전파가 발사된 지 90주년을 맞은 지난 해 9월 첫날,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 2층 그랜드볼룸이었습니다. 2017년 그 즈음 나라 안팎에서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방송인들이 자축과 격려, 보람과 덕담을 나누는 자리로 생각하고 참석했었습니다.

컨벤션센터 부근서부터 플래카드와 피켓을 든 젊은 방송인들이 경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적폐 청산'과 왜곡된 방송의 책임을 물어 방송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언론노동조합원들의 시위였습니다.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장에 들어서자 천여 명이 늘 모였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송 관련 주무 부처 장관은 물론 이른바 내빈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날 지상파방송 사장에 대한 경찰의 현장 체포 소

식으로 뒤송송한 가운데 모 사장은 그 자리에서 피신하였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도 구호와 고성으로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고 같은 일터에서 땀 흘렸던 사람으로서 마음 한 편이 시리고 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도 남기고자 하는 것은 1927년 2월 16일 서울 정동 1번지에서 JODK 경성방송을 개국한 이래 방송 9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올해 축하연은 흐뭇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55회 방송의 날을 맞아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1)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마음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 아나운서의 소명은 옳은 말, 바른말을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을 순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3) 아름다운 우리말 지킴이, 방송 언어의 파수꾼, 언어운사言語運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Entertainer가 아닌 아나운서로서 품위와 기본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5) 우리나라 방송 100년을 향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방송의 주역은 아나운서이기 때문입니다.



MBC 아나운서실장·편성이사 제주MBC 대표이사 사장 경기대학교 교수 평안북도 지사 역임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

아나운서상 박선영 SBS <본격 연예 한밤>, <씨네타운>

길잡이를 잃은 세계 등대를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 보는 걸 좋아합니다. 문득 올려다 본 밤하늘, 작은 별 하나 보이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길잡이를 잃은 세계 등대를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학삼년初學三年 천하무적天下無敵, 재수삼년再修三年 촌보난진寸步難進'이

라 했던가요. 10년차 아나운서지만 아직도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은 세계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도 말의 무거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카메라 뒤에 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빛이 닿지 않는 곳의 사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서툴지만 그래서 오히려 빛났던 순수한 시절의 그것처럼,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지역 라디오 연예 작품상 이관열

울산MBC <이관열 이남미의 활 깨는 라디오> 제작·진행

웃기로 걱정하고 제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 방송 여건상 제작·연출'도' 하는 아나운서가 아닌, 제작, 연출'을 해야 하는' '아나뉘서'의 시대를 맞이'당'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만 전

념할 수 있는 큰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일상과 격식에서 벗어나, 생계에 매달려 사느라 잠 재워둔 웃음 유전자를 깨워 유쾌하게 놀아보고 싶었습니다. <활 깨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 이름부터 짓고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우리 모두 삼시세끼 밥 먹듯 웃음 또한 거르지 않기를 바라며 청취자에게 무조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015년 6월 29일부터 매일 오후 2시 1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이관열 이남미의 활 깨는 라디오>. 훌륭한 원고를 창조해주시는 서보경 작가님, 제 옆에서 맛깔나게 진행하는 MC 이남미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광은 없었겠지요. 더욱이 이번에 이남미 씨가 진행자상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물론 가장 고마운 분들은 웃기로 걱정하고 방송을 들으시는 울산의 청취자 여러분이고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라 될 수 있어 항상 고맙고 행복합니다.

앵커상 김준호 OBS <뉴스 오늘>

그날의 날씨 같은 뉴스 토크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2014년 아나운서 클럽상을 받고, "10년 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생방송 해온 개근상으로 받겠다." 했는데 4년을 더 개근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출근부·출석부에 도장 찍듯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 60분간 전해드리는 뉴스가 그날의 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 오늘처럼 가치 있고 행복한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들, 저희 아나운서팀과 생방송 <뉴스 오늘>팀, 회사 동료들, 고맙습니다. 작년 5월 시작된 시사 토크로 앵커상을 받아 영광입니다.

어느 해보다 더웠던 여름, 그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냉혹한 현실이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충실한 삶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지역 방송 진흥상 울산MBC 최진구

방송밖에 모르던 저에게 이번 수상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역 방송 사는 존립의 기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MBC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랑스럽게도 울산MBC가 제45회 한국방송대상에서 4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역 방송사로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저력이라면 앞으로 닥쳐 올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MBC 화이팅!

제가 한국방송대상 '지역 방송 진흥상'을 수상한 것은 큰 기쁨이면서 보람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어쩌면 울산MBC라는 조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어서 또한 울산MBC와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한 번도 마이크 앞을 떠나지 않고 방송만 해온 저는 방송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던 저에게 이번 수상은 힘과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새벽도 두 번이 없으니 때 맞춰 열심히 일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가버린 옛 시절을 돌아보니 추억의 그리움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盛年不重來 一日難再晨 及時當勉勵 歲月不待人 眷眷往昔時 憶此斷人腸)"라는 도연명의 시로 수상 소감을 마칠까 합니다.

내레이션상 이규원 KBS <인간극장>

아름다운 우리말을 갈고 닦으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간 성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내레이션 부문에서 현직 아나운서가 수상한 것은 매우 드물기에, 모든 아나운서 선·후배들과 함께 받는 상이다 싶어 감동이 더해집니다.

20여 년 전 <ITV 문화기행>, 첫 더빙의 설렘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후 특집 다큐와 <VJ특공대> 등을 하며, 휴먼 다큐도 해 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인간극장>을 맡아 훌륭한

전임 후배들에게 뒤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높은 시청률과 호의적인 반응엔 오십 중반이란 나이 덕도 있는 듯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인공들의 희로애락을 공감할 수 있는 경험과 관록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함께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돋보기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말을 갈고 닦아 깊이 있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내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참말을 하는 방송인으로 이 상에 부끄럽지 않은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유리치체 송년 음악회>에서 만나요 12월 5일(수) 오후 3시 30분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

초대석

우리말 다듬기 (본보 5면) 새 필자
김상준(전 KBS) 감사

‘올바른 방송 언어가 듣기에 편안한 방송을 만듭니다’

KBS 한국어연구회 산파역 「한국어 아나운싱과 스피치」 등 16권의 전문 서적 펴낸 방송 언어 전문가

❀ ‘방송 언어’는 현재 국어사전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따위의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의 표제어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방송 용어’나 ‘방송말’, ‘방송어’ 등으로 써 왔는데, 오늘날 ‘방송 언어’라는 말로 굳어지게 된 데에는 김상준 선생님의 공이 매우 크다. 그는 1975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40여 년의 시간을 오로지 방송 언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온 방송 언어 전문가이다.

1986년에 펴낸 「방송과 우리말」에서 그는 ‘방송 언어’를 ‘방송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로 정의를 내리고 방송 언어는 일상 언어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며 국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는 국어 문법만 잘 지키면서 맑은 목소리, 정확한 발음, 알맞은 크기, 적절한 속도로 음악적인 리듬을 가미해서 말하면 방송 언어를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고 시청자가 듣기에 편안한 방송이 된다고 하였다. 이후 그는 「방송과 우리말」 「방송 언어」 「아나운서」 「남북한 보도방송 언어연구」 「한국어 아나운싱과 스피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발음과 낭독」 「표준한국어 발음사전-공저」 등 16권의 방송 언어 전문 서적을 펴냈다.

이처럼 그가 아나운서로서 방송 언어 연구와 교육의 외길 인생을 걸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1972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 배문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교편을 잡으면서 국어의 가치와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1975년 인생의 진로를 바꿔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잡은 이후 그는 방송 언어를 바르고 아름답게 구사하는 것이 곧 국어를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1983년 KBS 아나운서들이 만든 ‘KBS한국어연구회’의 큰 동력이 되었다.

❀ 한국어연구회는 1982년 7월 30일부터 준비 작업을 했었죠. 1982년 8월 3일 KBS 아나운서실 김주환 위원과 김영소, 이계진 아나운서, 그리고 제가 함께해서 추진 모체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국어 연구 기관과 국어 순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했죠. 아울러 KBS 국제협력부의 협조를 받아 해외 방송사의 한국어 연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Telex를 9개국 12개 방송사에 보내기도 했죠. 이 텔레크스에 BBC가 BBC Pronunciation Policy and Practice 등 많은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NHK는 방송용어 연구 위원회 자료 등 8권의 자료를 비롯해서 NHK 방송문화연구소 안내 책자 등을 보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발족에 즈음한 취지문을 만들고, 학술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낸 뒤 1983년 4월 23일 ‘KBS한국어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의 명칭은 처음에 ‘국민 언어 연구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의 건의를 당시 전영우 아나운서실장이 받아들여서 ‘KBS 한국어연구회’로 정했죠. ‘BBC 영어’, ‘NHK 일본어’와 같은 수준으로 ‘KBS 한국어’를 세계적인 방송 언어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 KBS 한국어연구회는 창립 이후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 방송 언어의 순화와 음성 언어 연구, 발음법을 비롯한 국어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한국어의 세계화,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사업과 KBS의 아나운서, 기자, PD, 리포터 등 방송 요원에 대한 교

육, 1989년부터 베이징, 하얼빈, 연변 등 북방 동포 아나운서와 미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해외 한국어 방송 요원의 현지 방문 교육과 초청 교육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또한 처음에는 아나운서들의 한국어 연구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사내에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1986년 아나운서실 내에 ‘한국어연구부’라는 공식 부서가 만들어졌고, 2018년 현재 1부장, 2팀장, 31부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의 기틀을 마련한 그는 1999년 아나운서실장에 취임하면서 아나운서실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 실장을 맡으면서 바로 2000년, 21세기 뉴밀레니엄(new millennium) 맞이 준비에 바빴습니다. KBS의 뉴밀레니엄 방송은 해외 파견 아나운서까지 포함하면 정규방송이 빠듯할 정도였죠. 지금 KBS 본사 아나운서는 백 명이 넘지만 당시는 70명 정도의 아나운서 인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1명의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더 바빴습니다. 아나운서실장 재임 중 26기가 11명, 27기와 28기 5명씩 총 21명의 아나운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나운서실의 운영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2000년과 2001년 우수 부서로 선정돼 실원들이 성과급도 많이 받았었죠.

❀ 그는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학구열을 불태워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문학 석사를 거쳐 2002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공부하는 아나운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박사 논문의 주제는 ‘남북한 방송 보도에 관한 비교 연구’였는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 방송의 뉴스 문장과 언어 표현, 문체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그는 2003년 정년퇴직 이후 동아방송예술대학에 전임 교수로 임용되어 13년 6개월 동안 후학들을 가르쳤다. 그가 맡은 과목은 ‘방송 언어론’, ‘아나운서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방송 문장론’, ‘아나운싱’ 등이었다. 2013년에는 아나운서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 ‘아나운싱’ 전공을 직접 개설해 신입생을 뽑아 교육하기도 했다. 그는 천생 아나운서이다. 올해 일흔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08년 8월부터 10년째 평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KBS 한민족방송 <통일전망대>의 ‘서울말 평양말’ 칼럼 방송 원고를 직접 써서 녹음하고 있다. 최근엔 전영우 선배님에 이어 (사)한국방송인 동우회 주최 바른말보도상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방송 언어의 전문가로서 아카데미에서 아나운서 교육에도 종사하고 있는 그에게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 저는 아나운서의 첫째가는 덕목으로 방송 기술자가 아닌 인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는 항상 ‘시청자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소리로!’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5분짜리 라디오 뉴스 하나라도 리사이틀(recital)을 한다는 생각으로 방송하면서 정성과 혼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1975년 입사(공채 3기)
1995년 한국어나운서연합회장
1999년 아나운서실장 겸 한국어연구회장
2002년 전주방송총국장,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
2003년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현재 KBS 한민족방송 <통일전망대> ‘서울말 평양말’ 진행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TTS(Text To Speech)가 기계적으로 뉴스 리딩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직종도 인공 지능 AI 아나운서에게 점령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후배 아나운서들이 세련된 아나운싱 능력을 갖추고, 시청자에게 꽃다발을 안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한다면 기계가 전달하는 뉴스와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년퇴임 후 대학교수에 이어 지금은 아나운서 아카데미 자문위원으로서 아나운싱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2회에 걸쳐 강의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방송화법이라고 할 아나운싱(announcing)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싱을 다섯 개 장르(genre)로 나눴죠. 장르1은 뉴스, 장르2는 내레이션, 장르3은 MC와 DJ, 장르4는 중계방송, 장르5는 시낭송 등으로 나눈 거죠. 아카데미에서는 3시간 수업 중 전반 90분을 뉴스 연습과 녹화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 아나운서이기 이전에 먼저 훌륭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조언을 들으면서 마음의 영역인 인성이 물리적인 영역인 목소리와 얼굴 표정, 심지어 발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나운서라는 특권직에 사로잡혀 시청자 위에 군림하면서 잘난 척, 예쁜 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 맑고 생동감 있게 성대를 진동시키는 목소리가 아닌 인위적으로 성대를 짓누르는 가성이나 음성을 예쁘게 꾸미려는 콧소리가 나올 수 있고, 시청자에게 호감을 주는 밝은 얼굴 표정이 아닌 권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턱과 입 등의 조음기관을 경직되게 만들어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상준 선생님의 소중한 말씀을 듣고 아나운서 23년차인 필자는 다시 신입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다. 스튜디오에 가기 전에 먼저 시청자에게 안겨 드릴 꽃다발을 준비하자. 그리고 원고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방 | 송 | 가 | 소 | 식

방우회, 물망비 옮겨온 KBS 추모공원서 기념식



(사)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정관용, 이하 방우회)가 주관하는 물망비勿忘碑 기념식이 9월 14일 오후 2시, 새롭게 이전한 KBS 추모공원(본관 중앙 계단 오른쪽)에서 열렸다. 방우회는 KBS 아나운서 출신인 조각가 최만린 고문에게 의뢰해 1991년 KBS 서현관

옆에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을 잊지 말자는 물망비를 세우고, 매년 가을 방송 선인先人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해왔다.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은 1942년부터 1943년에 걸쳐 단파방송을 통해 들은 대로 "일본은 전쟁에서 곧 패하게 돼 조선이 독립된다"는 전황戰況을 전했다는 이유로 350여 명이 검거돼 75명이 투옥되고, 6명이 옥사한 사건이다.

jtbc BBS 을 여름부터 아나운서연합회에 합류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SBS 염용석)에 종합 편성 방송사(이하 종편 방송)도 가입함으로써 연합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 모임인 한국아나운서연합회에 올 여름, 종편 방송 jtbc의 아나운서팀(박성준 팀장 등 9명)이 새로이 가입하고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불교 지상파 방송 BBS 아나운서부(부장 이선희 등 9명)의 재가입으로 아나운서연합회 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KBS, MBC, SBS, OBS, CBS, tbs, febc, cpbc, BBS, jtbc 등 10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227명을 비롯해 KBS 18개 지역사(65명), MBC 19개 지역사(83명), CBS 13개 지역사(30명), 극동방송 19개 지역사(43명), 평화방송 4개 지역사(3명), 불교방송 3개 지역사(3명) 아나운서 등 4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공영방송 신뢰도 회복 위해 올 가을 대대적 개편 단행

공영방송 KBS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올 가을 대규모 개편이 진행되었다. 1, 2TV에 각각 7개씩 모두 14개 프로그램을 신설, 조정하는 등 1TV는 시사, 2TV는 예능을 강화했다. 1TV <오늘밤 김제동>(월~목 오후 11시 30분)이 9월 10일 첫 방송되었고, 최원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TV <역사저널 그날>은 조선시대를 넘어 한국의 근현대사로 확장되었다. 2TV <대화의 희열>(토 오후 10시 45분)은 MC 유희열이 명사와 사석에서 만나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영자, 홍진경, 오상진이 진행하는 관찰 예능 토크쇼 <볼빨간 당신>(화 오후 11



시 10분)은 부모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자식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페이크 다큐 형식의 오피스 모큐멘터리 <회사 가기 싫어>(수 오후 11시)도 젊은 직장인들의 패기와 애환을 다룬다. 김상근(전 KBS) 회원의 기획으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방송된 KBS 간판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도 돌아온다. 김용만과 윤정수가 MC를 맡아 9월 26일 오후 7시 30분 KBS 1TV에서 첫 방송된다. 정형돈이 MC를 맡은 <댄싱하이>(금 오후 11시 10분)는 10대 춤꾼을 가리며 춤의 기량 뿐 아니라 춤 속에 담긴 사랑, 우정 등을 담아낸다.



아나운서국 기획 한글날 특집 다큐 2편 제작

아나운서국이 한글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협찬으로 특집 다큐멘터리 2편을 기획·제작 중이다.

외래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올바른 소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아나운서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외주 제작사를 선정해

제작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은 불통 속에 살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는 의도로, 세대가 다른 일반인의 모습을 관찰 카메라로 담아 '감성적 설득'을 이뤄낼 예정이다.

김정근 강다솜, <실화탐사대> MC로 발탁



축구 캐스터 김정근 아나운서와 MBC 디지털 뉴스 <14F> 앵커 강다솜 아나운서가 신동엽과 함께 9월 12일 오후 8시 55분에 첫 방송된 새 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의 MC를 맡았다. <실화탐사대>는 지난 5월 10일 파일럿으로 편성돼 '논픽션의 힘'을 보여주며 호평을 받아 최근 정규 편성이 확정되었다.



김윤상, SNS 스포츠뉴스 <돈 워리 스쿨> MC 낙점



김윤상 아나운서가 SNS 기반 스포츠뉴스 팀의 신규 프로그램 <돈 워리 스쿨> MC로 발탁되었다. <돈 워리 스쿨>은 '사회에선 알려지지 않는 월 200세대를 위한 경제 수업' 콘셉트로 진행된다.

2015년 2월 첫선을 보인 스포츠뉴스 팀은 젊은 세대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내며 뉴스 미디어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명규, 제1호 수석 아나운서로 임명



박명규 아나운서(1987년 입사)가 시니어 전문직인 '수석 아나운서'로 발령받았다. 시니어 전문직은 전문성과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받는 영예로운 자리로 아나운서 직종에서는 첫 발령이다. 박 아나운서는 31년차 아나운서로서 <내 영혼의 노래> 제작 진행, <낮중합뉴스> 진행뿐만 아니라 신입, 지역 아나운서 교육, 교안 제작 등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본사와 지역사 신입 6, 경력 1명 선발



서연미



채선아

재능과 열정을 갖춘 신입 6명과 경력직 1명 등 새 얼굴들이 들어왔다. 본사에 서연미, 채선아 아나운서를 비롯해 강원CBS 서정암, 대구CBS 김나영, 청주CBS 이한솔, 전남CBS 임중훈과 경남CBS 경력사원 정혜영 아나운서가 정식 발령을 받고 방송을 시작했다.

<신지혜의 영화음악> 20주년 기념 서적 발간



CBS FM <신지혜의 영화음악> 방송 20주년을 맞아, 신지혜 아나운서가 해온 오프닝과 천진란 작가의 원고에 각각 자신의 감상을 엮은 책이 발간되었다. '신영음'의 역사이자, 매일의 삶을 전하며 영화 같은 시간을 함께 엮어준 청취자들에게 보답하는 감사의 선물이다.



유영선 유진영, <특집 안전퀴즈왕 선발대회> 진행



유영선, 유진영 아나운서 진행으로 경기도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특집 <안전퀴즈왕 선발대회>가 7월 1일 방송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 안전 상식을 주제로 퀴즈 대결을 펼치는 <안전퀴즈왕 선발대회>는 올해로 4년째 OBS에서 방송되었다.



아나운서 진행 프로그램 청취율 대폭 상승



tbs 라디오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18년 3라운드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5.7%로 전체 채널 2위를 차지한 가운데, tbs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청취율이 대폭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선홍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유쾌한 만남>, 송정에 아나운서의 <좋은 사람들>, 황원찬 아나운서의 <서울속으로>, 최지은 아나운서의 <라디오 와이파이>, 김보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켜라>의 활약이 눈에 띈다. 특히 tbs <아침종합뉴스>는 8.4%로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파이팅! 나라사랑축제> 이틀간 울산에서 개최



광복 73주년을 맞아 '파이팅! 나라사랑축제 2018'이 8월 13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장찬희, 공나연 아나운서 진행으로, 14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최정민, 강주연 아나운서 진행으로 이틀간 열렸다. 12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600여 명과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회였다.



cpbc FM 창립 30주년 특집 <뽕뽕쇼> 김지현 김슬애 사회



8월 31일 오후 7시 30분 수원교구 안양 호계동성당에서 'cpbc FM 창립 30주년 특집 뽕뽕쇼! cpbc FM과 함께 노래불러요 - 평화의 노래'가 열렸다.

지난 30년간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선교 프로그램 애청자를 초대해 생활 성가 가수 장환진과 함께 흥겹고 유쾌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나래 이정민, 한반도 평화포럼 국제 학술회의 진행

8월 31과 9월 1일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에서 '2018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이 '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이나래, 이정민 아나운서가 각각 가톨릭대 양업관에서 열린 전야제와 본 행사, 그리고 서울대학교구정에서 열린 주교단 초청 환송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

신의석, 제18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사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제18회 정기 연주회가 9월 7일 오후 8시 명동대성당에서 열렸다. 신의석 아나운서가 3년 연속 진행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었다.



9월 9일 제주 방송 개국 서귀포는 연말 개국 예정, 전국 방송 네트워크 갖춘 종합 방송사로 위상 제고

제주불교방송 개국으로 본사 장수연 아나운서가 제주 방송부장으로 파견되었다. BBS 제주불교방송은 9월 9일 오전 10시 제주BBS 사옥(제주시 임항로 14)에서 장수연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개국식에 이어, 제주시 일원에 94.9MHz로 (서귀포 일원은 중계소가 완공되는 연말쯤부터 100.5MHz로 예정)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개국을 기념해 평일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한낮의 휴식, 장수연입니다>(사진)를 제주BBS에서 제작해 전국으로 방송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제주 자체 제작 프로그램 <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를 편성해 제주 지역의 사



회와 문화, 불교 등 전반적인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로써 1990년 5월 1일 개국 후 부산과 광주, 대구, 청주, 춘천, 울산, 제주 등 주요 지역에 지방국을 설립하고 인천, 창원, 진주, 광양 등 10개 지역에 중계소 설립을 마무리해 전국 방송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방송사로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다.



박성준 팀장 외 다채로운 즐거움을 주는 jtbc 아나운서팀을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임경진, 이수진, 안나경, 송민교, 황남희, 강지영, 조수애, 박성준

2011년 3월 '다채로운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JTBC! 아나운서팀은 이듬해 11월에 조직되어 현재 9명의 아나운서들이 손석희 사장이 담당하는 보도 총괄 소속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JTBC 아나운서는 JAS(JTBC Announcer School)라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 다채로운 즐거움을 주는 아나운서 2. 공부하는 아나운서 3.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아나운서 4. 국제 교류와 협력을 이끄는 아나운서 5.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BS 대전 출신의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박성준 팀장은 <사건 반장>의 앵커로 활약 중이고, MBC 출신 임경진 아나운서는 전반적인 스포츠 중계를 맡고 있다. 황남희 아나운서는 <아침&>, 강지영 아나운서는 <정치부 회의>와 골프 중계, 송민교 아나운서는 <이 시각 뉴스룸>과 테니스 중계, 장성규 아나운서는 <아는 형님> <오늘 굿데이>, 안나경 아나운서는 <뉴스룸>, 조수애 아나운서는 <아침&> <오늘 굿데이>, 그리고 신입 이수진 아나운서는 주말 뉴스 취재부에서 앵커와 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어가 프랑스말보다 아름답다?

두 나라 말에는 구개음 등 부드러운 소리가 많다 미래 시는 한국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인정할 것

필자는 한국어문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말과 글」에 2006년 봄호부터 2017년 겨울호까지 12년 동안 48회에 걸쳐 “아름다운 한국어 힘 있는 한국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었다. 한글 문서 통계로 2백자 원고지 2천백여 장 분량이다. 80년대 초반 필자가 인연을 맺기 시작한 한국어문기자협회는 이후 일간지 어문기자들과 방송사의 아나운서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다.

「말과 글」 연재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어아나운서클럽회보의 연재로 긴장하고 있다. 이규향 대선배께서 써오신 칼럼의 후속이어서 더욱 그렇다. 제목은 ‘힘내라 한국어!’라고 좀 파격적으로 붙여 보았다. ‘아름다운 한국어, 힘 있는 한국어’의 연장선에서 지은 제목이다.

「말과 글」 2017년 겨울호는 ‘특이점(singular point) 시대의 한국어’라는 부제를 달았었다. 이 글은 지난 2003년 말 방송계 원로로부터 들은 “한국어가 프랑스말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서두로 해서 미래의 한국어를 예측한 글이었다. 2003년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3국 방송 제작자들의 모임에서, 일본인 프로듀서가 일본의 한류 팬 여성들의 말을 한국 프로듀서들에게 전한 말이다. 그날 일본의 한 프로듀서는 그 모임의 공식 언어를 한국어로 하자고 제안했었다고 한다.

우리말과 프랑스어는 음성학적으로 비슷한 공통점이 많다. 두 나라 말에는 ‘ㄴ’ 구개음 등의 부드러운 소리가 많다. 프랑스말의 ‘다르파냐(d’Artagnan), 아비뇽(Avignon)’ 등에 들어 있는 ‘냐, 뇨’와 같은 소리가 한국어에는 많이 발달해 있다. ‘상냐, 안녕, 승뇨’와 같은 말이나, ‘청룡[청뇨], 영업용[영업뇨]’과 같은 ‘ㄴ’구개

음들은 우리말이 프랑스말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들리게 하는 요소들이다.

프랑스말의 소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고유의 문자가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말보다 우위에 있는 말이다. 프랑스어는 고유의 문자가 없다. 프랑스어의 글자는 알파벳(Roman Alphabet)이다. 알파벳은 로마인이 라틴어를 표기하기 위해 완성한 문자이다.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은 알파벳을 사용한다.

한국어는 복잡하고 변화가 많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말이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으로는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나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이 기계의 한계와 언어의 모호성을 초월하면서 인간의 말을 100%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2045년 무렵 기술적 특이점(singular point, singularity) 시대가 되면 AI에 의해 한국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국어는 음성언어적으로 발음과 억양의 변화가 복잡하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모음과 자음동화, 경음과 격음화, 유·무성음의 변화, 음운생각과 첨가, 치조음과 구개음, 절음법칙 등 다채롭게 발달해 있다. 억양 단위와 악센트 등도 대단히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 한국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우면서도 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김성준(전 KBS) 언론학박사



회 | 원 | 동 | 정



임국희 회장, 클럽 고문진 회의 개최

8월 27일 정오 서울 중구 힐튼호텔 증식당에서 임국희 회장 주최로 고문진 회의가 열렸다.

임 회장은 황우겸, 임택근, 강영숙, 전응덕, 박종세, 김동건 등 고문진에게 한국방송의 향도 역할을 하신 아나운서들의 본보기로서 더 오래 강건하시라고 축원했다. 이날 김규홍 부회장과 박민정 사무총장도 배석한 자리에서 고문진은 2시간에 걸쳐 추억담을 나누며 아나운서 직종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 씨 중앙 종친회 회장 취임

62번째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출간



전영우(전 KBS) 고문
전영우 고문이 7월 17일, 국내 55만, 해외 25만에 달하는 전 씨 중앙 종친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전국옹변경연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62번째 저서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대원출판)을 발간했으며, 이번 가을 학기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강의 중이다.

〈불후의 명곡〉 '가요무대' 편 출연



김동건(전 KBS) 고문
8월 17, 25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가요무대 기획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전설'의 자리에서 김 고문은 "가요무대의 존재 이유는 효과 가정의 화합이 장수 비결이다."라고

말해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KBS 목멱회에서 김승한 회원 문병

KBS 남산 시절 방송국 근무자 모임인 목멱木栢회 정회준 회장을 비롯해 이규향, 이팔웅, 김주혜, 송광자, 이명희 회원 등 20여 명이 7월 29일 인천 소재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김승한 회원을 찾아 완쾌를 기원했다.

제1라디오 〈정오뉴스〉 및 〈대한뉴스〉 명캐스터로 아나운서실장과 전주방송국장을 지낸 김승한 회원은 지난해 7월 하순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중으로, 회원들의 단체 문병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제2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KTV 특별 생방송 진행



이지연(전 CBS)
KTV 에서 8월 20일과 24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 데 이어 9월 4일 KBS 〈아침마당〉 이산가족 특집방송에 출연했다.

한편 이 회원이 진행하는 KBS 3R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가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생활 정보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노회찬 추모 문화제 사회



이금희(전 KBS)
9월 7일 정의당 주최로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고 노회찬 의원 추모 문화제'의 사회를 보았다. 이 회원은 2004년 당시 노 의원의 〈아침마당〉 출연의 계기로 2009년 선거 유세를 돕는 등 인연을 쌓아왔다.

'표준 우리말 성경 교재' 원고 마무리 작업 중



최창섭(전 MBC)
2011년 5월부터 성경을 쉬운 우리말로 정리하기 시작, 최근 '표준 우리말 성경 교재' 원고를 완성했다.

최 회원은 2004년 정년퇴직 후 12년간 탈북크리스천청년연합회 지도 장로로 영어성경을 가르쳤고, 2010년부터 성경을 CD 4장에 녹음해 시각장애인과 환자 등 1,100명에게 무료로 전하며, 인터넷 팟캐스트 '최창섭 아나운서의 성경 일독'을 운영 중이다.

영화 이어 연극 〈쥐뿔〉 출연



김성경(전 SBS)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연극 무대로 진출했다.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울 충무로 명보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야가사 크리스티의 〈쥐뿔〉 '보일'역에 캐스팅되어 출연 중이다.

제55회 방송의 날 여의도 축하연에 회원 20여 명 참석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5회 방송의 날 축하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방송 관련 단체장으로서 단상에 올랐던 아나운서클럽 임국희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송의 날은 우리나라가 1947년 9월 3일 ITU(국제전기통신연합)로부터 독자적인 호출부호 'HL'를 부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변창립 이후재 이혜옥 손석기 배유선 박용호 송현준 이정준 이보길 정도영 권정수 박영웅 강재형 김규홍 임화숙 정연호 조석영 남궁미 홍기욱 이성화 강영숙 이지연 임국희 차기정 채영신 전옥수



심우성(전 KBS)
8월 23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4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4년부터 KBS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민속학자 임석재 선생

제안으로 민요 채록에 나섰다. 그리고 광복 이후 처음으로 1959년 '꼭두각시놀음'을 재연했으며, 팽과리·장구·북·징으로 연주하는 민속놀이 '사물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65년 민속극회 '남사당'을 창단하고 1966년 한국민속극 연구소와 1996년 공주민속극박물관을 설립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등재를 이끌어낸 연희 분야 민속학 개척자이다. 공주민속극박물관에는 고인이 수집한 각종 탈과 인형, 민속 악기 등 민속극 관련 자료 1,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정미홍(전 KBS)
7월 25일 작고했다. 오래 전 앓았던 루푸스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2015년 1월 폐암 판정을 받았고, 올 2월부터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고인은 1982년 KBS 10기로 입사, 9시 뉴스 앵커와 1988년 서울 올림픽 메인 MC로 활약했고, 1993년 퇴사 후 서울 특별시 홍보담당관을 거쳐 MBC에서 프리랜서로서 〈정미홍이 만난 사람〉을 진행했다. (사)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이사장, 홍보, 코칭회사 대표,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태극기 집회에서 주목받았다.

고맙습니다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김윤희(전 KBS) 20만 원

MBC 변창립 부사장이 3분기 정례 모임 자리에서 만찬을 제공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식대가 후원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 최재혁(전 MBC) 아들 창우 군 혼사 10월 6일 오후 4시 30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
- 강다솜(MBC) 9월 15일 판사와 혼인
- 신동영(FEBC전남동부) 7월 23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 남궁미(전 MBC) 8월 26일 시모상
- 심우성(전 KBS) 8월 23일 본인상
- 정미홍(전 KBS) 7월 25일 본인상
- 성세정(KBS) 7월 17일 모친상
- 이규봉(KBS) 7월 15일 부친상(미국)
- 이종태(전 KBS) 7월 7일 모친상
- 김영재(전 KBS) 7월 3일 부친상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창녕 그곳에 가면 큰 뜻과 큰 마음이 세워져 있다

황우겸(전 KBS) 고문

경상남도 창녕 석리에 가면 North Face로 유명한 영원무역 창업주 성기학 회장의 고택古宅이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 일행이 6월 29일, 30일 그곳에서 1박 2일을 함께했다. 창녕 고택 방문은 나에게 의미 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

성기학 회장이 임국희 회장의 인척인 연유로 아나운서클럽을 두 번이나 초청했는데, 나는(사진 중앙)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성기학 회장을 만나자마자 향시웃음을 머금은 후덕한 인상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탈한 태도, 그리고 재치 있는 말솜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얼마 전 크게 보도되었듯이 그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200억이란 거금을 희사하여 선친의 호를 따서 愚石우석경제관을 건립하고 후배 양성을 하고 있다. 유택을 잘 보존하면서 조상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기업을 일으키고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그 능력은 또 얼마나 출중한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공장 시설을 영상으로 보니 참 대단했다. 누구나 국경을 넘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인 봉사과 인류애를 가식 없이 실천하고 있는 성기학 회장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세계 9개국에 9만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영원무

역. 특히 방글라데시에는 약 7만 명의 종업원이 여의도 3, 4배 크기의 대도시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종업원 아파트를 비롯해 교육시설부터 각종 문화, 의료, 오락, 종교시설까지 하나의 국가와 같은 규모와 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일행의 대표로 만찬 자리에서 성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국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5, 6백 년 전 유적과 궁전 등을 복구시키는 권한과 공사까지 부탁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그 나라 대통령까지 맡아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 섞인 말까지 하였다.

또 한 가지 칭송하고 온 것은 경화회관이라는 사단법인체 노인회관의 현대적 시설과 규모, 운영 방침이었다. 경화회耕和會는 창녕의 선각자인 성 회장의 선친 성재경 선생께서 그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지역 발전에 환원시킨다는 신념을 갖고 뿌리내린 애국, 애족, 애향의 상징이다.

성 회장이 선친의 뜻을 받들어 일천 평 규모의 땅에 대강당, 결혼식장, 식당, 전시장 등 문화시설까지 갖춘 최첨단시설의 노인회관을 기증했고, 老人會에서 직접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는 90여 명의 노인회원이 자진 헌금하여 건립한 성재경 선생의 공덕비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번 행사에 김규홍 부회장 부부가 밤샘 먹거리 준비는 물론 부인의 재치 있는 디자인 솜씨로 영원무역 로고와 아나운서클럽의 마이크 로고를 접목시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영원무역'과 우리 아나운서클럽이 '영원 발전'한다는 현수막을 제작해 만찬장 단상에 게양, 분위기 고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내가 김규홍 부회장을 우리 한국아나운서클럽의 보배라고 하는 것이다.

영원무역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후원업체로서 국위 선양에도 일조하였다. 나는 영원무역의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하며 특히 성기학 회장의 건투에 앞으로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행복했던 시간 창녕 여행 일지

채영신(전 KBS) 편집위원

6월 29일(금) 장마철이지만 흐린 날씨, 20~28℃. 나(사진 중앙)는 황우겸 고문을 비롯한 아나운서클럽 회원 24명 등 일행과 함께 오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노스페이스 우등버스에 몸을 실었다.

김규홍 부회장과 영원무역 실무진의 완벽한 준비로 제공된 조식 샌드위치와 풍부한 간식을 즐기는 사이 청주 간이 휴게소에서 이종태, 전옥수 회원과 합류하고 대구 현풍할매 곰탕집에서 별미를 맛본 후 영원무역 대구공장에 도착했다.



먼저 대강당에서 영상 자료를 보며 영원무역의 해외 사업 및 투자 국가의 문화사업 지원 현황에 대한 성기학 회장의 브리핑을 들었다. 성 회장이 27세이던 1974년 영원무역을 창업해 세계적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출시한 것은 국내 아웃도어 산업에 전환점을 마련한 혁신 무역의 대표 사례이다. 한국 기업 최초로 방글라데시에 생산기지를 만든 후, 중국의 칭다오, 베트남 하노이, 중미의 엘살바도르 등지에 진출해, 44년 만에 7만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며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세계적 의류 회사로 키워냈으니 말이다.

“ 김삼준 우리나라에도 사회 환원 문화에 모범적인 기업가가 있으니 자랑스럽다

배덕환 내 나이 86세. 건강하게 지내며 아나운서클럽에서 이런 행복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다

윤성원 최고를 추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오너의 품성을 느낄 수 있었으니 기업 영원永元은 永遠영원하리라

이세진 큰 부자임에도 수수하게 지은 가옥 구조만 봐도 겸손한 자세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풍이 느껴진다

전옥수 조길자, 채영신 회원과 고택에서 하룻밤 지내며 선후배와 더욱 친해졌음에 감사드린다

이후재 성기학! 성내지 말고 낮은 소리로, 기를 꺾지 말고 웃는 얼굴로, 학처럼 독수리처럼 세상 살피자

전우벽 평창 룡패딩처럼 자체 개발까지 하며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 인정!

차인태 성기학 회장의 융숭한 대접에 감동받았다

“ 더구나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며 방글라데시의 유적지 복원에도 나섰다고 한다.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복원 사업 영상을 보니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을 실천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성기학 회장과 영원무역의 사회 공헌 활동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오후 4시, 경상남도 창녕 석동마을에 위치한 '창녕 석리 성씨 고가'로 이동했다. 경근당 등 6채가 경남 문화재자료 제355호로 지정된 곳이다.

고택 앞 양파 시배지始培地 기념비가 아나운서클럽의 두 번째 방문을 반겨주는 듯하다. 1909년 성기학 회장의 증조부 성찬영 선생이 이곳에서 처음 양파 재배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성 회장 부친 우석愚石 성재경成在慶(1916-1980) 선생은 '돈은 잘 쓰는 게 중요하다'란 신조로 일제강점기 때 自費자비를 들여 '지양 강습소'를 운영했고 6.25 동란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 환금식물로 양파를 보급했으며, 1963년에 한국 최초의 농민 자조단체인 '경화회'를 조직한 선각자였다.

각자 배정된 방에 짐을 풀고 3만 3,000여 m²의 대지에 어우러진 16채의 고택과 문화재급 자료들이 잘 보관된 전시물을 둘러본 후 야외 만찬장에 자리했다. 성기학 회장의 환영 인사와 임국희 회장의 답사에 이어 이종태 회원의 진행으로 즐거움을 배가시킨 만찬은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맛있는 한우구이에 와인을 곁들이며 우애를 돈독히 한 화합의 자리였다.

6월 30일(토) 어제와 비슷한 날씨. 선물 받은 흰색 노스페이스 윈드 재킷을 걸치고 조깅화를 신고 나선 새벽 산책길이 마냥 가볍기만 했다.

아침 식사 후 화왕산 자락에 건립한 경화회관으로 이동했다. 첫 방문 때 성기학 회장이 부친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신축, 기부한 경화회관의 최첨단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졌었는데, (사)경화회가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어 노스페이스 신축 건물까지 둘러본 후 창녕의 명소, 1억 4천만 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국내 최대의 자연 내륙 습지 우포늪으로 가 체험관을 둘러본 후 우포 청국장집에서 점심을 끝으로 창녕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복 에너지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외식기업

SL&C 생활문화사업은 Hospitality Business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HINESE CUISINE CHAI797



Chai797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
다채로운 수제딤섬과 전통 중화요리

www.chai797.co.kr

바른고기·바른가격 정육점



정육점

세가지 맛 1++ 한우 등심

정육점 불고기

우리 땅의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담은
버섯 생불고기

www.justbutchers.co.kr